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루가 복음사도

제 19주일

성 루가 복음사도

제 2조,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2조 부활찬양송 / 81, A 212

•주일 입당송 / 14, A 42

•사도 찬양송 / 84, B 262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 85, A 226

•사도경 : 골로사이 4:5~11, 14~18 / 봉독서 597

•복음경 : 루가 10:16~21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루가 복음사도

성 사도 바울로의 한 서신에서 보면 “사랑하는 의사 루가가 문안하고...”(골로사이 4:14)라고 루가 복음사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루가 복음사도를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18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루가 복음사도는 주님의 탄생과 양육과정을 직접 눈으로 본 목격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로의 동행자와 보조자가 되어 신약성서에, 세 번째 복음서와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기술하였습니다. 루가 복음사도는 또한 성모님의 복음사가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사가보다 거룩한 테오토코스 성모님에

대해 루가 복음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 희보,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루가 1:46) 그리고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대해 우리는 루가 복음서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되다”

흔히 사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충고할 때는 자기의 지식과 생각을 전달하고자 한다. 본인의 생각이 바르기에 그 말을 잘 따르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기의 생각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자기만의 철학이 강하고 고정되었기에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사고의 중심은 본인이 주체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테두리 안에 기준을 세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그 뜻대로 따르기를 바란다. 그 생각이 관철되지 못하게 되면 시기하며 적대시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 짓기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는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 즉, 생각과 사고, 습관 등을 주님께 맞추어 살려고 노력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수도자를 비롯하여 성직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중심이 주님이시다. 믿음의 주체가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뿌리가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깨닫고 영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활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족 간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며 주님을 앞세우고 대화를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다. ‘내가’하며 본인 중심적 대화만 하고 지내고 있다면 아직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루가 10:16)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달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으로 전하려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리인의 역할만 충실히 하려고 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명예를 얻게 된 것은 자신을 내세워서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얻게 된 것이다.

일흔 두 제자가 기쁨에 넘쳐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도 복종시켰습니다.”(루가10:17)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루가10:20)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 교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라는 뜻이다. 그와 같이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생각을 위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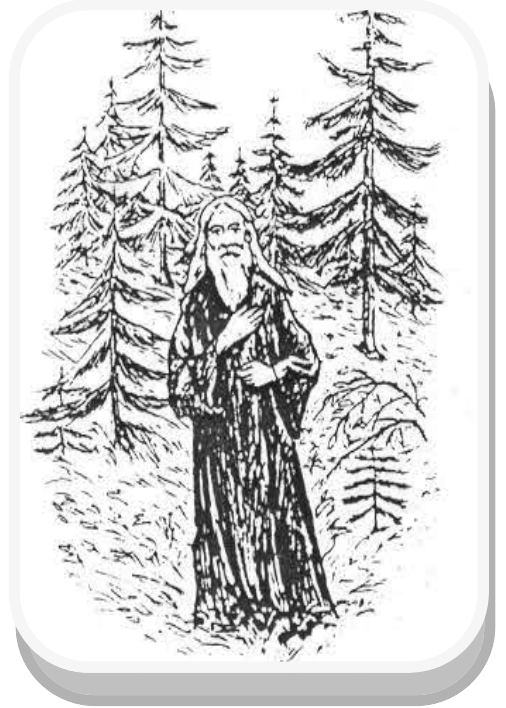
어떤 신문의 기사에 머리말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한 사람을 측정하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이른다면 기준으로는 :

- ☞ 돈을 벌고 쓰는 능력
- ☞ 그(녀)가 모는 차의 가격과 생산년도
- ☞ 그(녀)의 외모와 신체적 힘과 신장
- ☞ 그(녀)의 직업과 성공여부
- ☞ 좋아하는 운동과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
- ☞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과 모임의 숫자
- ☞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신뢰도

우리가 사람을 가늠하는 기준은 매우 (깊이가 없이) 얇고 피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의 것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치와 척도를 보십시오 :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우리는 다른 이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척도에 따라 평가합니까?

주님, 제가 사람들이 저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초하여 저의 삶을 평가하게 해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오 5:3)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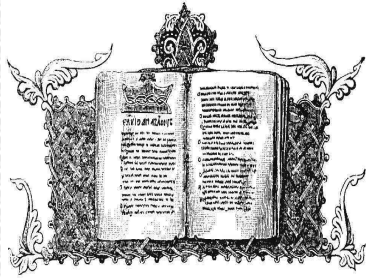
대교구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0월 21일(수) 축일을 맞이하시는 전주 성모 안식 성당의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게 훌륭한 사목 활동을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온라인 성서공부에 참석합시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느님께 이 질병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정부의 지침을 잘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매주 금요일 성서 공부에도 꼭 참석하여 영적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매일 밤 10시 기도에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도록 간청합시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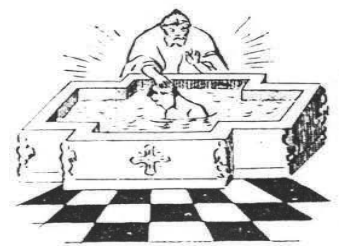
예배 참여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진정된 결과로 오늘부터 대면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완전한 상황은 아니지만 교회는 정부지침을 지키면서, 신자분들도 지침을 따르면서 성당 예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성당 규모에 따라 한정되어 있지만 한 자리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세례와 견진을 축하합니다

지난 10월 11일 성 막심성당에서 주일 성찬예배 때 로만 신부의 집전으로 러시아인 김 에브게니아 교우가 세례성사를 통해, 또한 함 니나 어린이가 견진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보호로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온라인 단체모임

서울 성당에서는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께서 신데즈모스(청년회) 모임과, 세례예비자 모임을 온라인으로 주일에 계속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면 모임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계속 온라인 모임이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